



백영화 선임연구위원

## 요 약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적발 현황에 의하면 2023년에도 보험사기 적발 금액 및 적발 인원이 증가하였고 특히 자동차보험에서의 보험사기가 증가하였음.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의하면 2022년 수처상으로도 보험사기죄의 경우 일반 사기죄에 비해 구약식과 기소유예 처분의 비중이 높았음. 또한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통계 중 제1심 형사법원의 선고 결과를 보면, 2022년 수처상으로도 여전히 보험사기죄가 일반 사기죄에 비해 벌금형 선고 비중이 높고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는 비중이 낮았음

-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매년 증가하여 2023년에는 1조 1,164억 원에 달함
  - 금융감독원은 2024년 3월 「2023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였음
  - 이에 의하면, 2023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 1,1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6억 원(3.2% ↑) 증가하였음
    -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109,522명으로 전년 대비 6,843명(6.7% ↑) 증가하였음
  - 보험종목별 적발 금액을 보면 자동차보험(49.1%)과 장기보험(43.4%)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특히 자동차보험에서의 보험사기가 증가하였음
    - 최근 몇 년간 장기보험에서의 적발 금액이 가장 많았으나, 2023년에는 자동차보험에서의 적발 금액이 가장 많았음
    - 즉, 자동차보험에서의 적발 금액이 5,476억 원으로 전년 대비 771억 원(16.4% ↑) 증가하였고, 장기보험에서의 적발 금액은 4,8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8억 원(6.5% ↓) 감소하였음
  - 보험사기 유형별로 적발 금액을 보면 예년과 마찬가지로 사고 내용 조작(59.3%) 유형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허위 사고(19.0%), 고의사고(14.3%) 순임
    - 다만 증감률을 보면 사고 내용 조작 유형은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하였고(1.0% ↓), 허위사고(11.0% ↑) 및 고의사고(3.0% ↑) 유형은 증가하였음
    - 세부 유형으로는, 사고 내용 조작 유형 중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18.2%), 자동차사고 운전자·피해물·사고일자 조작 및 과장(17.6%), 음주·무면허 운전(12.9%), 허위 사고 유형 중 질병의 상해사고 위장 등(11.5%) 유형이 많았음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이하 '보험사기죄')에 대한 검찰의 처분 결과에 의하면, 2022년 수처상으로도 여전히 구약식과 기소유예 처분의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대검찰청이 2023년 12월 발간한 「2023 범죄분석」에서는 2022년 범죄자 처분 결과<sup>1)</sup> 통계를 제공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보험사기죄에 대한 처분 결과를 보면, 2022년에도 기소되는 경우 중 구약식의 비중과 및 불기소되는 경

우 중 기소유예의 비중이 높은 모습을 보임

- 2022년에 7,385명이 보험사기죄로 검찰 처분을 받았는데, 이 중 2,845명이 기소되었고 이 중 구약식으로 처리된 경우가 1,616명이며(기소된 경우의 56.8%), 불기소된 사람은 1,460명이고 이 중 1,268명(불기소된 경우의 86.8%)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
- 일반사기죄는 기소된 경우 중 구약식의 비중이 30.9%, 불기소된 경우 중 기소유예의 비중이 61.8%였음

〈표 1〉 최근 3년간 보험사기죄 및 사기죄 범죄자 처분 결과

(단위: 명, %)

연도	구분	계	기소			불기소					기타 <sup>3)</sup>
			소계	구공판	구약식 (비중) <sup>1)</sup>	소계	기소유예 (비중) <sup>2)</sup>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2020	사기	329,329	82,771	53,741	29,030 (35.1)	115,119	13,595 (11.8)	95,110	26	6,388	131,439
	보험 사기	11,780	4,548	1,908	2,640 (58.0)	5,232	2,741 (52.4)	2,427	1	63	2,000
2021	사기	204,929	53,369	37,376	15,993 (30.0)	11,696	6,131 (52.4)	4,752	-	813	139,864
	보험 사기	10,975	3,555	1,721	1,834 (51.6)	2,337	2,020 (86.4)	302	-	15	5,083
2022	사기	197,378	57,305	39,625	17,680 (30.9)	9,410	5,811 (61.8)	3,020	1	578	130,663
	보험 사기	7,385	2,845	1,229	1,616 (56.8)	1,460	1,268 (86.8)	184	-	8	3,080

주: 1) 기소된 경우 중 구약식의 비중임

2) 불기소된 경우 중 기소유예의 비중임

3) 소년보호송치, 가정보호송치,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보완수사요구, 공소보류 등이 해당하며 2021 수치에는 사법경찰관의 결정(사법경찰의 불송치, 수사중지) 항목이 포함됨

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를 토대로 정리함

○ 보험사기죄에 대한 제1심 형사법원의 선고 결과에 의하면, 2022년 수치상으로도 여전히 일반 사기죄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벌금형의 비중이 높고 징역형 실형의 비중이 낮았음

- 법원행정처에서 2023년 9월 발간한 「2023 사법연감」에서는 2022년 법원의 선고 결과 통계를 제공하고 있음
- 2022년에 제1심 형사재판에서 처리된 결과<sup>2)</sup> 중 벌금형 및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비중을 보면, 일반 사기죄가 7.5%, 보험사기죄는 39.6%였음
- 또한 2022년에 일반 사기죄에서는 유기징역의 실형이 선고되는 비중이 60.8%, 보험사기죄의 경우 22.5%였음

1) 자연인인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종국 처분 결과임

2) 형사공판사건 죄명별 재판 인원수표 통계에 의함

〈표 2〉 최근 3년간 보험사기죄 및 사기죄 선고 결과(제1심)

(단위: 명, %)

연도	구분	계	자유형		재산형 (비중)	재산형 집행유예 (비중)	무죄 (비중)	기타 <sup>1)</sup>
			유기징역 (비중)	집행유예 (비중)				
2020	사기	44,056	25,732 (58.4)	9,732 (22.1)	4,222 (9.6)	121 (0.3)	1,127 (2.6)	3,122
	보험 사기	1,310	310 (23.7)	393 (30.0)	459 (35)	18 (1.4)	42 (3.2)	88
2021	사기	44,949	26,656 (59.3)	10,395 (23.1)	3,789 (8.4)	125 (0.3)	1,309 (2.9)	2,675
	보험 사기	2,011	406 (20.2)	542 (27.0)	880 (43.8)	10 (0.5)	61 (3.0)	112
2022	사기	41,733	25,393 (60.8)	9,405 (22.5)	3,040 (7.3)	89 (0.2)	1,305 (3.1)	2,501
	보험 사기	2,017	453 (22.5)	602 (29.8)	784 (38.9)	14 (0.7)	59 (2.9)	105

주: 1) 선고유예, 형의 면제, 면소, 공소기각, 소년부송치, 가정보호사건송치, 무기징역, 사형 등이 포함됨  
 자료: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통계를 토대로 정리함